

# GIST, 2026 AI-ACE 이노코어 연구단 워크숍 개최

부산서 이틀간 개최... 멘토-펠로우 간 기술 교류·네트워킹 진행

- AI·나노기술 융합 기반 뇌질환 조기진단 원천기술 개발 및 융합형 연구인력 양성
- 전문가 특강·성과공유·포스터 발표 통해 연구 협력 강화 및 사업화 가능성 모색



▲ 3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GIST AI-ACE InnoCORE 연구단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뇌질환 조기진단을 위한 AI+나노융합(AI-ACE InnoCORE) 연구단(단장 이은지)이 3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2026년 GIST AI-ACE 이노코어(InnoCORE) 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ACE 이노코어 연구단'은 인공지능(AI) 융합 영역에서 혁신(Innovation)을 주도할 핵심(CORE)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AI와 과학기술이 결합된 융합형 인재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작년 11월 1일 GIST 캠퍼스에서 출범했다.

연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박사후연구원(post-doc, 포닥)을 핵심 연구진으로 구성해 AI와 나노기술을 융합한 뇌질환 조기진단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연구단에서 AI 분야별 산업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와 펠로우(Fellow·박사후연구원)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기술·연구 교류를 통해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은지 연구단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용근 물리학과 교수의 특강,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성과공유회·포스터 발표로 구성됐으며, 연구단 참여 멘토 24명과 멘티 41명 등 총 6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멘토링이 진행됐다.



▲ KAIST 박용근 물리학과 교수(토모큐브 대표)가 멘토와 펠로우들을 대상으로 '융합: 광학, AI, 바이오, 반도체, 창업'을 주제로 연사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 첫날에는 박용근 KAIST 물리학과 교수가 '융합: 광학, AI, 바이오, 반도체, 창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생체현미경이라고 불리는 홀로토포그래피(Holotomography) 기술을 활용한 진단·연구용 장비를 제조하는 '토모큐브'를 창업했다.

이어 진행된 성과공유회에서는 AI-ACE 이노코어 연구단의 3개 연구 부문별 리더인 이재영 신소재공학과 교수, 이현주 AI융합학과 교수, 정현호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성과 공유를 위한 발표를 진행했다.

그 외 포스터 발표·네트워킹 시간에는 박사후연구원들이 프로젝트별 연구 성과 소개, 융합 연구 추진 전략, 공동연구실(Co-Lab)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뇌 질환 진단·치료 AI 솔루션 전문기업 (주)뉴로핏 김동현 대표가 기업가적 관점에서 연구 성과 창출과 사업화 가능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뇌 질환 치료를 위한 전기적 뇌 자극 시뮬레이션 연구를 수행한 빈준길 공동대표와 함께 지난 2016년 (주)뉴로핏을 설립한 배경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두 대표는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대학원 동문이다.



▲ 워크숍의 핵심 세션인《포스터 발표 및 네트워킹》에서 펠로우들이 연구 성과 포스터 앞에서 멘토들과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박가은 박사후연구원은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연구를 이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히며 "이번 워크숍에서 나눈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련 물질을 선별해 변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연구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AI-ACE 이노코어 연구단장(신소재공학과 교수)은 "이번 워크숍은 AI 분야의 차세대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멘토와 펠로우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AI 융합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